

01 교회소식

빛의 열매를 내는 영적 장수

189명의 새 임직자가 탄생한 '2023 임직예배'와 북아메리카 남부 멕시코 이달고에서 개최된 권능의 손수건 집회(행 19:11~12) 소식.

02 생명의 말씀

꿈을 이루실 줄 믿음으로

요셉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한지 끝까지 변치 않는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킬 때 마침내 응답받아 영광 돌릴 수 있다.

03 기획특집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감사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리는 통로이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므로 범사에 감사해야 신속히 변화될 수 있다.

04 간증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질병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생활을 회복해 가니 하나님의 응답받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1002호 2023년 9월 24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2023 임직예배', 장로 및 권사 189명 취임



지난 9월 17일 오후 3시, 주일 저녁예배는 '2023 임직예배'로 드려져 장로 3명, 명예장로 4명, 시무권사 144명, 명예권사 38명, 총 189명의 새 임직자가 탄생했다.

1부 예배 시 예수교연합성결회 부총회장 이수진 목사는 '빛의 열매'(엡 5:8-9)라는 설교를 통해 임직자들에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니 성경 66권 말씀 무장과 불같은 기도,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이루므로 빛의 열매를 내는 영적 장수로 나올 것"을 전했다.

2부에는 이수진 목사가 집례하는 가운데 장로 장립 및 시무장로 취임, 명예장로 취임 및 추대, 시무권사 취임, 명예권사 취임 및 추대가 있었다. 임직자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임직서약을 했고, 성도들은 축하와 격려의 힘찬 박수를 보냈다.

3부 감사와 축하의 시간에는 채윤석 장로(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WCDN 회장)의 축사와 이상철 장로의 답사 후 예능위원회 서승원 집사의 축가에 이어 예물 증정, 취임패 수여, 이수진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멕시코 이달고 손수건 집회

지난 9월 9일 오후 5시, 멕시코 이달고 톨란싱고에서 약 600명이 모인 가운데 권능의 손수건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톨란싱고만민교회 성도들이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전파하고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 돼 자체적으로 준비해 개최하게 되었다.

강사 장정연 목사(콜롬비아만민교회)는 '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라는 말씀을 전한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환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사진 1~3).

그 결과, 헤르망 라몬 구스만(남)은 15년간 척추의 문제가 있었으나 움직이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되었고, 아날리스 벨프랑(여)은 갑상선중독증으로 생긴 갑상선종이 사라졌으며, 쏘넨시온 바리노(여)는 백내장과 시력의 문제로 안경을 착용해야 했으나 시력이 회복돼 안경 없이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비센떼 사르미엔또(남)는 8개월 전 사고를 당한 후 어깨를 올리지도 손을 움직일 수도 없었고 왼쪽 무릎의 통증으로 일할 수도 없었으나 모든 통증이 사라졌으며, 세노리나 베르따스 오르피스(여)는 오른쪽 어깨 근육 파열로 잘 움직

일 수 없었으나 잘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에리카 무뇨스 곤살레스(여)는 수술 후 상처가 아물지 않아 통증으로 잘 걸을 수 없었으나 상처가 아물고 통증이 사라져 잘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도 위, 간, 비뇨기 질환 등이 치료되고 몸의 각종 통증이 사라지는 등 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한편, 9월 8일 오전 10시에는 빠추까 시에 위치한 은혜교회(담임 호세 노게라 목사)에서 주의 종 모임이 있었다. 강사로 선 장정연 목사는 주의 종 50명이 모인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이라는 주제로 강의했으며, 12개 교회가 협력 교회로 가입하였다(사진 4).

9월 10일 주일, 오전에는 새생명교회(담임 노에 솔리스 목사)에서 '달란트와 미나'(고전 15:19, 41)라는 말씀을 전했다. 오후에는 톨란싱고만민교회 창립 5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다.

장정연 목사는 '너는 여호와와 복을 받은 자니라'(창 26:29)를 설교했으며, 톨란싱고만민교회는 창립 5주년을 앞두고 손수건 집회를 개최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므로 더욱더 뜻깊은 창립 기념일이 되었다(사진 5).



꿈을 이루실 줄 믿음으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히브리서 11:22)



당회장 이재록 목사

누구든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어떤 소망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지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변치 않는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킬 때 마침내 응답과 축복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이룬 인물입니다. 과연 요셉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기에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1.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삶과 신앙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

첫째, 사람이 고난받는 까닭은 대부분 자신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노년에 얻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고급 채색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이 일하러 나갈 때도 곁에 둘 정도였지요. 요셉에게는 열 명의 이복형이 있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동생만 편애하는 것이 늘 불만이었습니 다. 더구나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시시콜콜 아버지께 일러바치니 형들에게 미움을 샀지요.

물론 요셉은 옳지 않은 것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의로운 마음으로 한 행동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다며 형들에게 자랑합니다. 꿈에 형제들이 함께 밭에서 곡식을 묶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 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 단을 향해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는 꿈에서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였다고 자랑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꿈이었고, 오랜 세월 후에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이 좀 더 지혜롭고 겸손했다면 공연히 꿈 이야기를 꺼내 형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잠잠히 마음에 담아두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 나이에 아직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주변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덕과 지혜가 부족하여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말았지요.

이렇게 여러 일이 쌓여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졌고,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은 마침내 기회를 얻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이 팔려 간 것은 형들의 악한 마음 때문이지만 요셉에게도 잘못이 없다는 할 수 없습니다. 평소 그가 자랑이나 교만도 없고 낮은 마음으로 형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 마음을 맞춰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요일 5:18).

정녕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을 겪을 때 먼저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둘째, 참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멀리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갑니다. 도단까지 간 형들은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고 비웃으며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지요.

그러나 만형 르우벤의 뜻에 따라 죽이지 않고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넷째 형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은 이십 개를 받고 팔리는 신세가 되었지요.

하루아침에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가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자신을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간 곳은 애굽 왕의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해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그 집 제반 사무를 맡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지요. 그런데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한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요셉에게 그녀는 앙심을 품고 자신을 희롱하려 했다고 오히려 누명을 씌우지요.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억울해하거나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 다. 때로는 어려운 고비를 만나 기도 하고, 자신의 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초라한 자리

에서 별 진보 없이 시간만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아름다운 그릇으로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참믿음을 소유하면 성실함으로 세상 사람 앞에서 인정받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힌 후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마냥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뿐더러 주변 사람들에게 밝고 성실한 모습으로 섬기고 희생하며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이 되어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지요. 이런 요셉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곳마다 범사에 사랑과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도 전옥의 인정을 받아 옥중의 제반 사무를 감당하게 되었지요. 어느 날,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관직을 박탈당하고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옵니다. 하루는 이들이 각각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사흘 뒤에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지요.

그로부터 2년 뒤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두 번이나 꾀쳐 꾸자, 그것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므로 애굽의 술객과 박사 중 누구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합니다. 모든 인고의 세월이 지나고 마침내 요셉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왕 앞에 서게 된 요셉은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며 하나님을 전한 뒤 명쾌한 꿈 해석을 합니다.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까지 제시해 주지요(창 41:1~36). 요셉이 풀어놓은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한 애굽 왕은 그를 애굽 총리로 세웁니다. 요셉이 서른 살이 되던 해의 일로서, 종으로 팔려 온 지 13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넷째,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 참믿음입니다. 과연 요셉의 해몽대로 애굽 전역에는 7년간의 풍작이

<p>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p> <p>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p> <p>홈페이지 www.manminnews.com</p> <p>만민중앙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p>	<p>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p> <table border="1"> <tr> <td>주일 대예배</td> <td>1부 10:00 AM 2부 11:30 AM</td> </tr> <tr> <td>주일 저녁예배</td> <td>3:00 PM</td> </tr> <tr> <td>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td> <td>9:00 PM</td> </tr> <tr> <td>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td> <td>11:00 PM</td> </tr> <tr> <td>금요철야예배</td> <td>11:00 PM</td> </tr> <tr> <td>수요예배</td> <td>7:00 PM</td> </tr> <tr> <td>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td> <td>8:30 PM</td> </tr> <tr> <td>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td> <td>9:00 PM</td> </tr> <tr> <td>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td> <td>4:00 PM</td> </tr> <tr> <td>다니엘 철야 기도회</td> <td>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td> </tr> <tr> <td>새벽예배</td> <td>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td> </tr> </table> <p>※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p>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이재록 목사의 부흥성회 설교집 |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있고 난 뒤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지혜로 흉년을 대비했기에 애굽에는 충분한 식량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몰려왔고,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형들도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오게 되었지요. 애굽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하며 식량을 구하게 되었으니 결국 어린 시절 요셉이 꾸었던 꿈대로 이뤄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가족은 요셉을 통해 기근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비록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그를 연단하셔서 애굽 총리로 세우고 부모와 가족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 가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짧은 시간에 꿈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머리로서 요셉의 그릇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큰 장관의 가정사를 총괄하며 경제와 인사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애굽 총리가 되어 나라 전체의 경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왕의 감옥에서는 수감자들을 통해 총리로서 필요한 정치적 자질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려면 선하고 능력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악한 사람들의 온갖 권모술수나 계략 등을 알아서 다스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낮은 자리를 거치면서 요셉은 더욱 겸비해져 사랑과 덕을 갖춘 큰마음이 되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단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통하면서 믿음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지요. 변함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성실함으로

연단을 잘 받아 마침내 강대국 애굽 전역을 치리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롬 5:3-4).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길이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렬지라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성실함으로 연단을 잘 받아 나갈 때 마침내 응답받아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2. 믿음과 소망으로 꿈을 이룬 요셉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하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굳게 믿었지요.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 해도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장차 이스라엘 족속이 큰 민족을 이뤄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게 되면 자기 해골도 함께 가져가 달라고 유언한 것입니다(창 50:24-25 ; 히 11:22).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약 400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출애굽 하여 가나안을 향해 떠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이미 400년 전에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잊지 않고 명심해 그대로 믿어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받은 축복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이라는 큰 섭리를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인류를 구속할 예수님을 보내시려는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셉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미약했기에 한 국가를 이룰 만큼 큰 민족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변의 강한 적들을 피할 피난처가 필요했지요. 또 그의 시대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 것인데 이스라엘 족속이 이러한 재앙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큰 나라 애굽의 식량과 물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 총리가 되게 하였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으로 인도해 들이심으로 큰 흉년 중에도 이스라엘 족속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이후로 400년 동안 번성하여 출애굽 할 즈음에는 한 나라를 이룰 만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창 45:7-8)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도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이를 통해 그가 평생토록 얼마나 믿음으로 소망하며 꿈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과 비전을 이루며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여러 시험과 환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변함없이 꿈과 소망을 가질 때는 이것이 영혼을 굳건히 하는 뜻이 됩니다(히 6:19). 어떤 역경 속에서도 튼튼하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탱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요셉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범사에 감사할 때 더 큰 응답과 축복 넘쳐

감사는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리는 통로

환경이나 여건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으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하셨으니 지금 응답이 없다 해도 실망하지 않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변함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부닥친다 해도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 믿으니 염려할 것도 없이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요. 곧 감사는 믿음에서 비롯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의 표현일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킴으로써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리는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서 마음속의 비진리는 벗어버리고 선과 사랑인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요일 1:5~7).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만큼 성경에 담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에 감동하며 감사가 넘치고 그 말씀들이 꿀맛같이 달게 느껴집니다(시 119:103).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는 과정에서는 정금이 나오기 위해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단련 과정을 겪듯이, 사람의 마음도 깨끗하고 순수한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범사에 감사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능히 비진리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기뻐하지 않고 힘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런 악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버렸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요, 잠재운 것뿐임을 깨달아 마음속의 비진리를 발견하면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누구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면 신속히 믿음의 반석을 넘어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중순경, 둘째 아들 정우가 기침하기 시작하더니 연말에는 가래 끓는 소리가 매우 심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감기가 아니구나!' 싶어 2023년 1월 4일(수),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니 폐렴이었고 담당 의사는 약으로만 치료할 수 없기에 입원해야 한다며 조금 더 지켜보고 더 심해지는 것 같으면 주말이라도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교구장님께 상담하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것과 1월 은사 집회에 대해 알려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저를 돌아보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온몸은 불이 붙은 것처럼 뜨겁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요.

그런데 1월 8일(주일), 첫째 아들 건우의 왼쪽 눈이 다래끼 난 것처럼 빨갛더니 충혈되었고 눈곱이 질게 켜졌습니다. 건우는 매우 간지러워했지요. 그다음 날 안과에 가보니 결막염이 심하게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약 처방밖에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께서 인도하시는 '랜선 환자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연이어 두 아이가 아프니 남편과 저는 어린 자녀가 아픈 것은 부모로부터 비롯됨을 알았기에 기도하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발견해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였습니다.

남편은 주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일을 거룩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김은혜 집사 (28세, 3대대 16교구)

하게 지키지 못하고 십일조도 온전히 하지 못한 것 등이 떠올라 회개하였고, 저는 거룩한 주일에 종교품 거래를 했던 것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짜증 내고 화냈던 것 등을 회개하였지요.

이와 더불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 기도(자동 응답서비스)를 받으며 권능의 무안단물을 뿌릴 때마다 아이들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마침내 1월 11일(수) 병원 검진 결과, 정우와 건우 모두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안 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 금요일야예배 시 은사 집회에 아이들과 함께 사

모함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는데 치료의 확신이 들면서 제 등에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웠지요.

저는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정우에게 얹고 기도를 받았습니. 그 뒤 조금 남아 있던 정우의 증상이 사라져 깨끗이 치료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지내던 어느 날, 저는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간수치가 높고 C형 간염 항체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받으니 담당 의사는 수치가 높지는 않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받아 볼 것을 권했습니다.

저는 교구장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았습니. 다. 아이들이 치료받는 권능의 역사

를 체험한 후에도 마음에 변함이 없었는지 돌아볼 것을 권면하셨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교구 봉사에도 잘 참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제 마음을 믿음 안에 굳건히 할 수 있었지요. 그 뒤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C형 간염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천국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양손 검지와 약지의 마비와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홍석조 집사 (59세, 1대대 4교구)

2023년 3월 14일, 갑자기 왼손의 검지와 약지에 마비가 오고 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받아 보니 왼손의 검지와 약지에 염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진행 중인 '작정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기도하면서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라, 하지 마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말씀들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가는 내비게이션인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불순종한 제 모습이 떠올라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그런데 5월 23일, 오른손의 검지와 약지에도 왼손과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놀란 마음에 '어려다가 전신으로 마비와 통증이 오는 거 아닌가? 불구 되는 거 아닌가?' 하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통회자복 하며 저는 5월 은사 집회를 준비하였지요. 그 당시 제 상태는 양손의 통증이 너무 심해 밤에 잠들기 쉽지 않았고, 다니엘 철야 기도회

때 손뼉 치며 찬양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통증 때문에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도, 볼펜을 잡는 것도, 운전대를 잡고 돌리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지요.

무거운 짐은 물론 물건을 사서 옮기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상대방과 악수하려 하면 '앗' 소리와 함께 너무 아파 몸을 비비 꼴 정도였지요. 이처럼 일상생활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5월 26일, 금요일야예배 시 은사 집회에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 그때 양손에 시원한 느낌과 함께 손가락 통증이 사라지고 마비가 풀리면서 양손 모두 구부러지지 않던 손가락들이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 어느 것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마음 깊이 느끼며 소중한 일상을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여방동1099-2 J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령천서로 57 광림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3927-7526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6320-598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547-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전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운로 129 향야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4-5816,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330-31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